

이제는 임실N치즈축제의 시간

심민군수, 축제 최종 점검... 돼지열병·태풍 등 대비 만전

2019 임실N치즈축제의 시간이 돌아왔다.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를 주제로 9개 테마 84개 프로그램이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층 발전된 축제장 시설보강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야간경관 조명과 포토존 확대, 구절초 꽃동산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축제를 위해 메인무대 그늘막 설치보강, 셔틀버스 추가, 교통전문요원 증원 등 방문객 편의시설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축하공연,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만들기,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전국 어린이 치즈요리 경연대회, 아모르파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

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넓은 초지와 유럽풍 테마관광지에 펼쳐진 천만송이 국화꽃의 멋스러운 향연은 무르익어가는 가을날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임실군 맛집'으로 선정된 일부 업소가 참여하여 한 장소에서 임실군 여러 맛집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한우 안소를 맛 볼 수 있어 미식가들의 관심을 벌써부터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민군수는 2019 임실N치즈축제의 준비상황 최종점검에 연일 나섰다. 돼지열병 확산과 태풍 등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이뤄졌다.

심 군수는 특히 축제장 공간 구성과 개막식 퍼포먼스, 프로그램 세부 일정, 환경정비, 주차 및 교통대책 등 축제운영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난달 30일과 1일에 거쳐 직접 현장을 돌며 세심히 점검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축제장 방역 준비와 주변 축사 시설에 대한 점검과 태풍에 대

비하여 축제장 전반의 시설 안전점검 및 행사 일정 조정 등을 논의했다.

심민군수는 "올해가 임실N치즈축제를 전국 최고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만큼,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깨끗한 주변 환경 및 교통대책으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로 행복한 가을날의 추억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란다"며 "임실치즈도 저렴하게 판매되는 만큼 많이들 사가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에 처음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매년 많은 방문객과 함께 대성공을 이루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2019 우수축제'와 전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한 단계 높아진 만반의 준비로 대한민국 최고축제의 명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친일화가 춘향 영정의 존치 고민해야”

양희재 남원시의원 주장

남원시 의회 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희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반민족 대표 친일화가 그린 춘향 영정의 존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원은 예로부터 충효예열의 고장이요 남원하면 춘향이리며,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이 반민족 대표 친일화가 중 한명인 김은호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이어 이 의원은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의 일편단심은 정절이자 정의라면서 반민족 부패 대표화자인 김은호에 의해 그려진 영정에서는 춘향정신이 표현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은호의 장수 의암사 사당에 모셔진 논개 영정은 그의 친일 행적과 일본식 화풍이 논란이 되어 2008년 2월에 충남대 윤여환 교수가 그린 표준영정으로 교체되었다며, 남원시에서도 경남 진주출신 강주수 화백이 그린 최초의 춘향 영정이 향토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만큼 친일 화가의 작품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니면 고증을 거쳐 영정을 새로이 제작할 수도 있고, 굳이 고상한 인물로 의인화할 이유가 없다면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춘향영정으로 새롭게 그려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재개장

순창군이 보건의료원 내 장례식장을 1일 재개장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장례식장 운영방법 개선과 내부시설 보완 등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행정절차 및 인력 확보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휴업한지 10개월 만에 다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장례식장내 노후화된 부분을 새 단장하는 동시에 장례지도사도 확보해 운영인력 여건도 개선했다.

사용료는 휴업 전과 동일하게 1일당 지역민에게 20만원, 관외인에게 25만원씩을 받는다.

장례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식비도 사용자가 재료를 직접 선택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용자가 조문객에게 대접할 음식을 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음식비용으로 인해 상주와 발생되는 갈등관계를 최소화했다.

또한 식자재부터 장의용품, 장례업체 등도 상주 측이 직접 선택하도록 해, 타업체와 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장례식장 운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 또한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 부문에서 많은 혜택을 봤다면 사용 만족도가 높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학대피해가정 환경개선사업 진행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전주대학교 굿네이버스 동아리 '굿 씨드'(회장 진현수)와 남원지역 학대피해가정에 대해 방임서비스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임패키지 서비스는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 에 대한 직접적 지원(환경개선사업, 식료품 및 청소용품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선정된 가정은 친모와 아동 2명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으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등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이에 봉사단은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지원 및 내부 환경정리를 진행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기 전 가족회의를 통해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족도가 높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흥부사랑 줌도리 쌀 모으기 선포

제27회 흥부제 기간 떡 만들어 남은 쌀과 지역 어려운 이웃 전달 예정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는 제27회 흥부제를 맞이해 1일 흥부제전위 관계자, 자원봉사단체장, 4대 종단,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줍도리 쌀 모으기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줌도리 쌀 모으기 시연, 떡 메치기 체험, 떡 나눔 및 시음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흥부의 나눔 정신과 이웃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경남 봉사센터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흥부정신이 우리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양원 시장은 "줍도리 쌀을 살피는 사랑 나눔 행사가 지역을 하나로 묶고 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남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제27회 흥부제를 맞이해 1일 '줍도리 쌀 모으기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행사기간 모아진 줌도리 쌀은 제27회 흥부제 기간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에서 떡을 만들어 남은 쌀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필 예정이며, 줌도리 쌀 기부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636-136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한민국 생활 스포츠 대상

순창군이 스포츠마케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군은 1일 데일리 스포츠한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리빙TV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다음달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리며, 군은 이번 수상으로 상금 500만원과 함께 상패를 받는다.

순창군과 함께 전남 광양시가 생활스포츠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 수상이 결정됐고, 단체부문에서 스포츠교육희망나눔협동조합이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수상에 선정에 김주연 심사위원장(전 한국기차협회장)은 "우수성, 전문성, 현장응용, 홍보역량, 주민여론, 지속성, 평판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정량,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스

포츠 전문가와 언론기자 등의 공정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이번엔 대상을 받게 된 배경에는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스포츠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40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확정지으며, 스포츠마케팅의 산실로 거듭났다.

특히 정구나 테니스 등 관련 종목에 대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코트가 읍내에만 30곳으로 시설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관련 대회만 올해 22개 대회를 확정지었다.

순창군은 그 동안 정구와 테니스 등 관련 종목에 치중해 왔으나, 순창 팔덕면에 조성중인 야구장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유소년 야구 및 사회인 야구대회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10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개최

남원시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10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지난 9월 태풍 링링과 타파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등 당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대통령 상)된 사실에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 시장은 4분기 시정성과 창출 및 2020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 대응해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특히,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과 현안 업무에 대해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7회 흥부제가 답습의 행사가 되기보다는 남원의 대표 가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단풍철 남원의 주요관광지를 찾는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